비전향장기수 63명공동사진첩

《우리는 금방석에 앉았습니다》

비전향장기수 63명공동사진첩

《우리는 금강산에 있었습니다》

주체91(2002).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가 영웅들입니다.》

김 정 일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이 어머니당의 품,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두해가 되여 온다.

한두명도 아닌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한꺼번에 분단의 장벽을 넘어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날의 감격과 격정의 파도가 오늘도 눈앞에 선히 어려 온다.

그들은 오늘 행복과 영광의 최절정에 올라 있다.

철창속에서 시들어 버렸던 주름 깊은 얼굴엔 젊은이들마냥 청춘의 열정이 넘쳐 나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이 안겨 준 최상의 믿음과 영예가 가슴마다 빛나고 있다.

기적이라면 이런 경이적인 기적이 그 언제 있었고 사랑이라면 이런 위대한 사랑이 그 어디에 또 있었던가.

이런 기적, 이런 꿈 같은 현실을 펼쳐 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뜨거운 동지적의리, 불면불휴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집단적대이동》이라고 세인이 격찬한 세계사적사변이 마련될수 있었고 흐르는 날과 달과 더불어 끝없이 더해만 가는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위대한 동지애의 서사시가 수 놓아 지고 있는것이다.

하기에 비전향장기수들의 가슴에 차넘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정도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

편집부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긴 한돐을 맞으며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만들었던 비전향장기수 63명공동사진첩을 이번에 그대로 재판한다.

아직은 세상에 있어 본적 없는 비전향장기수 63명공동사진첩, 이 공동사진첩에 깃든 비전향장기수들의 뜨거운 진정의 목소리를 여기에 싣는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 오지 못한 전사들을 두고 그토록 마음 쓰신 어버이수령님께 장군님의 품에 안겨 만복을 다 누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 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때문에 바치신 로고가 그 얼마이신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들때문에 더는 근심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들처럼 행복에 겨워 있는 백발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잠시라도 쌓이신 피로를 푸시였으면 하는것이 저희들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장군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금방석에 앉았습니다.》

조국의 품에서 청춘을 되찾은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

강동근동지

김동기동지

김명수동지

김석형동지

김선명동지

김영달동지

김일진동지

김인서동지

김만수동지

김종호동지

김중종동지

김창원동지

리공순동지

리두균동지

리세균동지

리재룡동지

김영만동지

김영대동지

김용규동지

김용수동지

김우택동지

김은환동지

고광인동지

류운형동지

류연철동지

류한욱동지

리경구동지

리경찬동지

리 종 동지

리종환동지

박문재동지

박완규동지

방재순동지

윤희보동지

석용화동지

임병호동지

손성모동지

장병락동지

한종호동지

송상준동지

장 호 동지

한춘익동지

신광수동지

전 진 동지

함세환동지

신린수동지

전창기동지

홍경선동지

신인영동지

조창손동지

홍명기동지

안영기동지

최선묵동지

홍문거동지

양정호동지

최태국동지

황용갑동지

오형식동지

최하종동지

우용각동지

한백렬동지

윤용기동지

한장호동지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으로!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 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가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중에서—

꿈이던가 생시던가, 살아 못 가면 죽어 넋이라도 가리라던 조국의 품에 안기는 순간 터지는 오열을 누르지 못한다.

주체89(2000)년 9월 2일,

수십년세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악형속에서도 신념과 지조를 꿋꿋이 지켜 낸 비전향장기수들이 저주로운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꿈결에도 안기고 싶던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들어 선다.

아, 어머니조국이 안겨 주는 축복의 첫 꽃다발을 받아 안는 격정의 순간이여!

어디 한번 안아 보자 민족의 장한 아들들아

당과 조국앞에 다진 맹세대로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키고 돌아 온 자랑과 긍지가 비전향장기수들의 얼굴마다에 한껏 어려 있다.

《어버이수령님, 경애하는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 놓아 터치는 감사의 인사 판문점의 하늘가에 메아리쳐 간다.

판문점에 세운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친필비앞에서 목청껏 만세를 웨치는 비전향장기수들

통일친필비를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는 비전향장기수들

환영 나온 군중들과 마중 나온 가족친척들로 사람바다, 꽃바다를 펼친 통일각 앞마당

평생의 소원이 풀린 꿈 같은 이 시각 저희들은 먼저 대해 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푸시여 저희 63명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송환의 길을 열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환영모임에서 우용각동지가 한 《조국인민들에게 드리는 인사》중에서－

통일각안에서 열린 환영모임에 참가한 비전향장기수들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휘장이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수여되였다.

《자나깨나 그립고 뵙고 싶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가슴에 모셨으니 이제 당장 숨진대도 여한이 없습니다.》

통일각안에서의 감격적인 가족상봉, 얼마나 보고 싶던 사랑하는 딸의 모습인가, 얼마나 부르고 싶던 아버지란 부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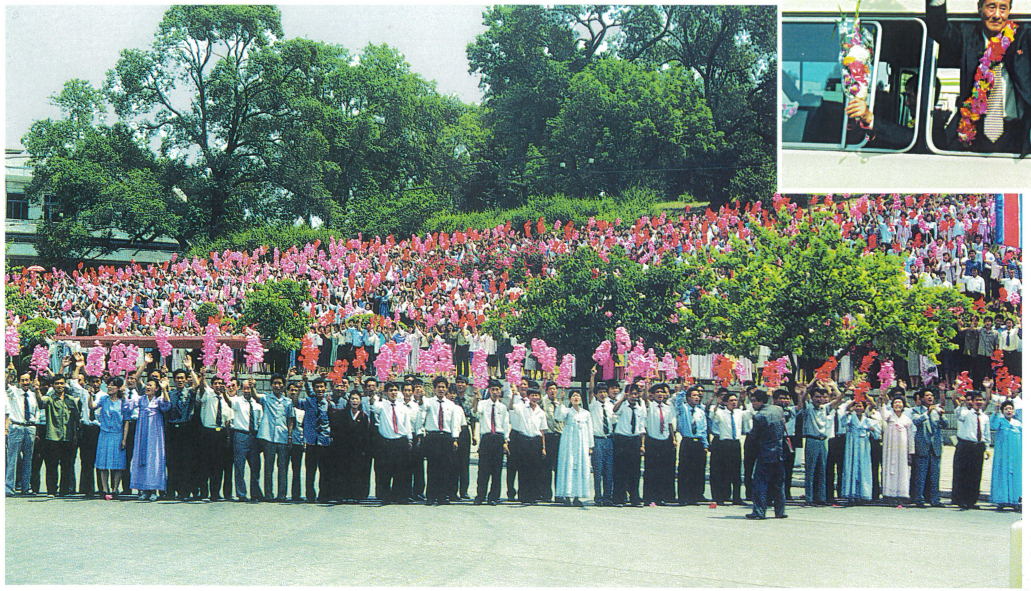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손길이 아니였던들 살아 생전에 아들이 부어 주는 이런 잔을 받게 될줄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아버지 없이도 너무나 대견하게 자란 딸의 모습에 그만 넋을 잃었는가.

사진의 색은 바랬어도 그 나날에 간직한 신념 변색 없었거니.

《이 딸은 아버지가 이렇게 장한 모습으로 돌아 오실줄을 굳게 굳게 믿었어요.》

수백리 연도에 펼쳐 진 환영의 꽃바다, 사랑의 꽃수레에 실려



…

아, 다 시들었던 인생 꽃 피워 준

어버이장군님의 그 사랑

죽어서도 이 가슴속에 시들지 않을 꽃다발

영원한 내 삶의 꽃다발이여!

—홍명기동지의 시 《꽃다발》중에서—

9월 2일

그날은 내 한생에

제일 많은 꽃다발을 받은 날입니다

쇠고랑을 찼던 이 손에

철쇄에 묶였던 이 가슴에

…

길지 않은 여생을
가는 지팽이에 의지했던 몸
세상이 보란듯이
장군님 보내주신 금마차를 타고
내 삶의 진짜 고향으로 왔나이다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기였나이다

—전창기동지의 시 《삶의 진짜 고향》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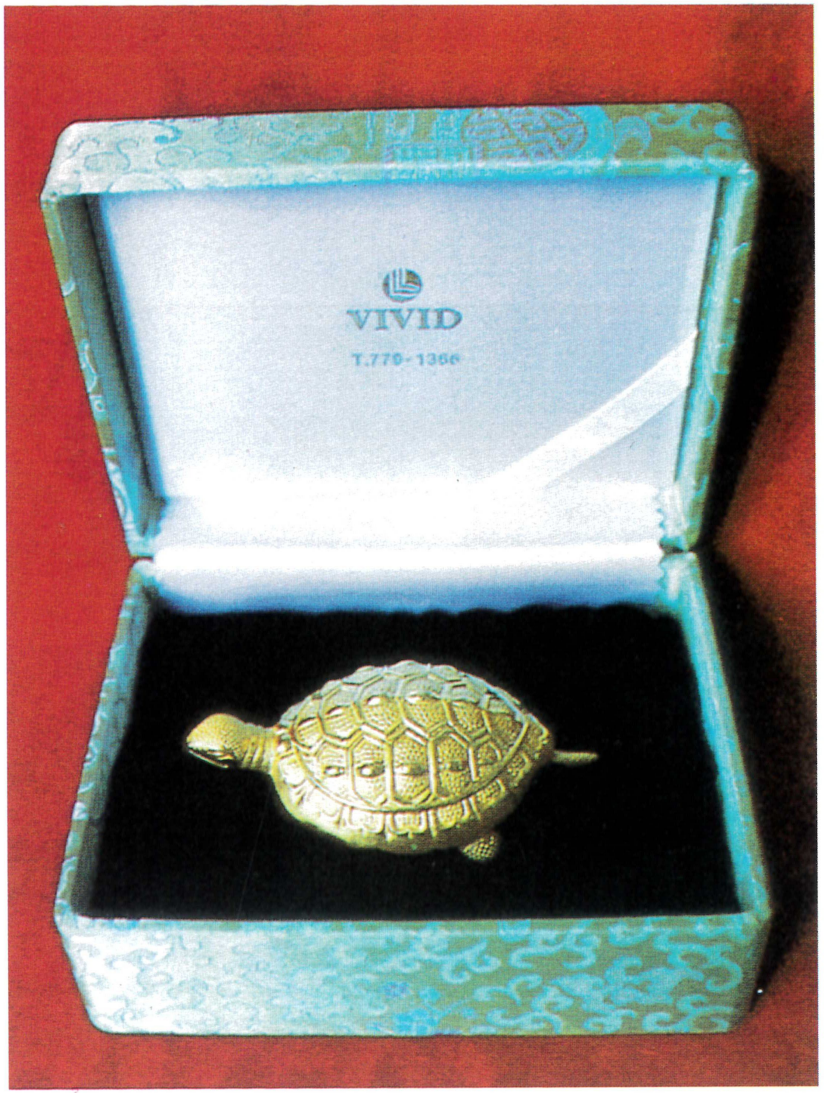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 비전향장기수들

비전향장기수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올린 선물들중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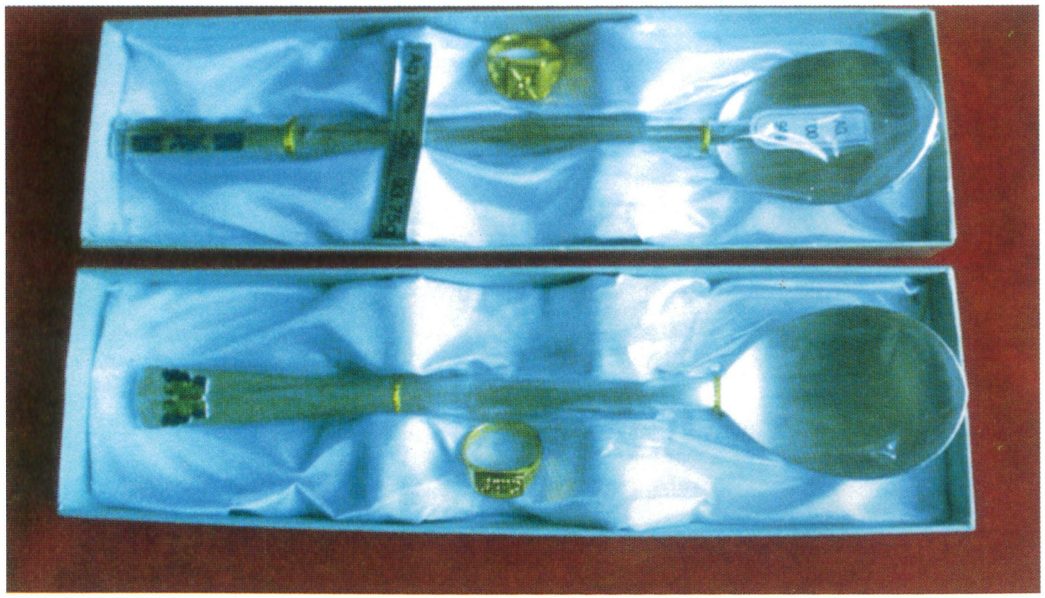
《통일조국의 령수 김정일장군》(김창원)

금공예 《금거부기와 금반지》(김석형)

금공예 《금목걸이》(우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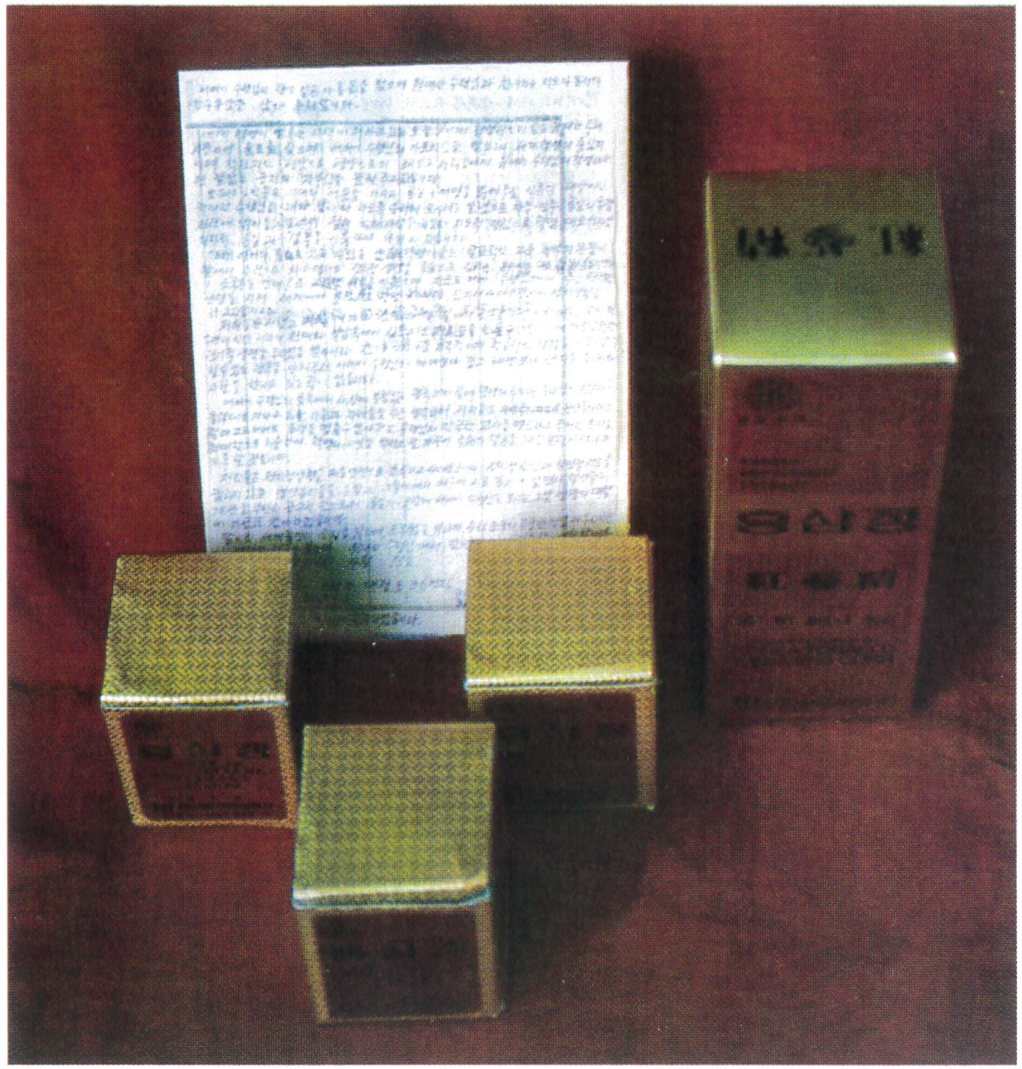


금공예 《금거부기》(신인영과 그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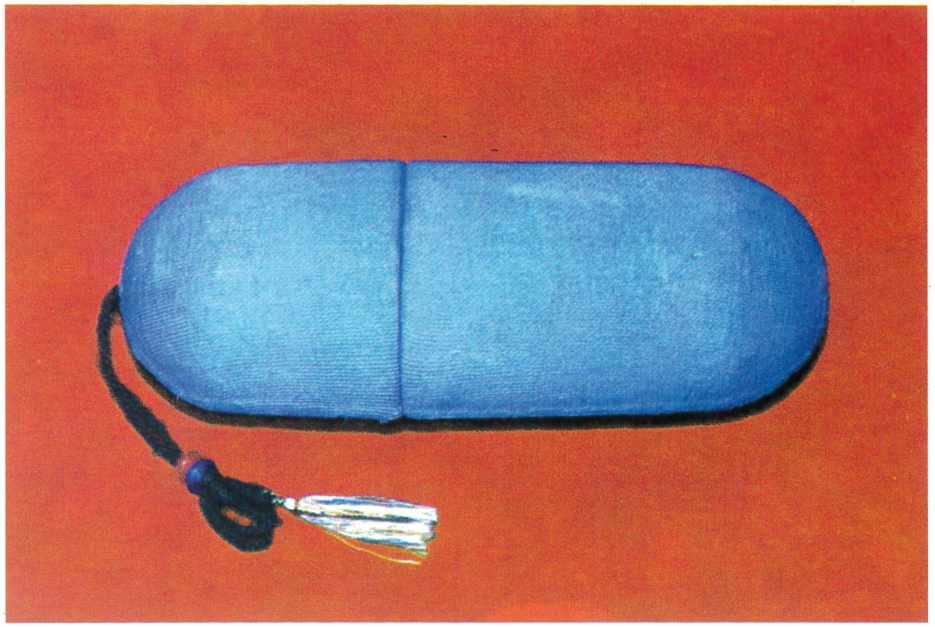


《은수저와 금반지》(홍문거)

금공예 《호랑이를 장식한 금반지》(최 태 국)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리는 축하 편지와 홍삼정》(신광수, 손성모)



《안경집》(김선명)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굽이굽이 머나먼 길 홀로 걸을 때
바람 부는 험한 령길 나 홀로 걸을 때
남몰래 살펴 준 그 사랑 내 미처 몰랐네
아 내 운명 지켜 준 어머니당이여

—노래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중에서—

김일성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아 이제는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사랑의 바다
김 일 성대원수님과
김 정 일장군님 품에
안기였으니

철창속 수십여년 쌓이고
쌓인
천만 시름 다 풀며
이 땅에 흘러 가는 행복
의 순간순간을
천년세월로 누려 주세요
부디 복 많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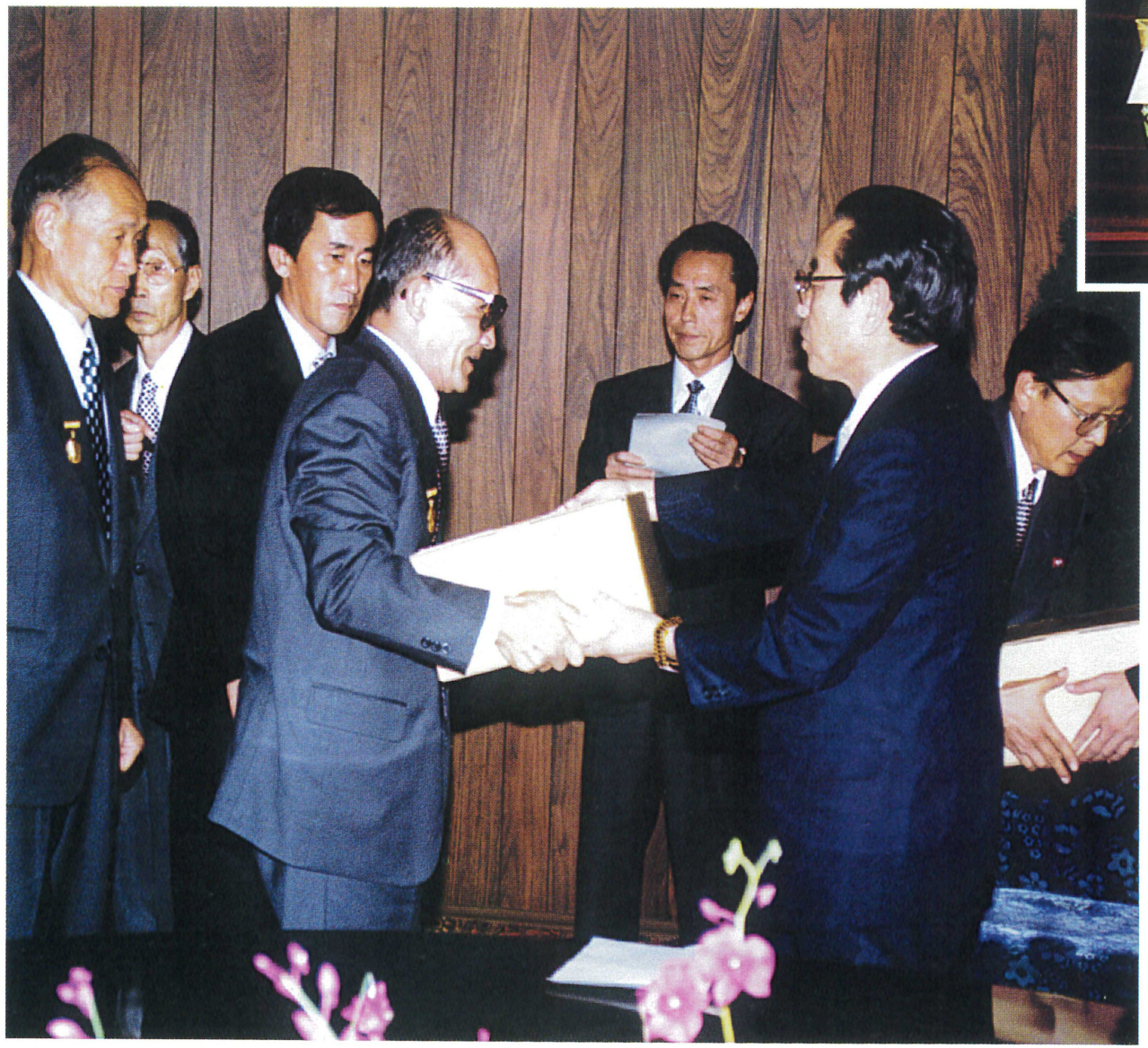
—군중대회에서 한 조선소년단축하단의 축하문중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굳게 믿고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 싸운 비전향장기수 63명에게 조국통일상이 수여되였다.

만수대의사당에서 조국통일상을 수여 받는
비전향장기수들

조국통일상 수상자로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비전향장기수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배려해 주신 생활필수품 일식을 전달 받는 비전향장기수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옥중에서 병든 몸을 하루빨리 추세우라고 사랑의 보약들을 보내주시였다.

조국을 위해 크게 한 일도 없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만을 끼쳐 드린 전사들에게 이렇게 거듭되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 주시니 하늘 같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는단 말입니까.

—선물전달식에서 한 리두균동지의 토론중에서—

넘쳐 나는 선물전달식장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뜨겁게

방송야회에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비전향장기수들

감방안에는 하늘이 없어도 우리에겐 푸른 하늘이 있었고 0.75평 굴속 같은 감방안엔 해빛 한점 스며 들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밝은 해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 그 해님은 바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손성모—

사람들은 아버지 없는 설음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점 그늘이 질세라 친아버지가 되여 주신분도, 지옥에서 헤매이는 아버지에게 사랑의 불사약을 보내주시고 오늘은 이처럼 기다리는 자식들의 곁으로 데려다 주신분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십니다.

—김인서의 딸—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비전향장기수들

만경대가문의 애국전통 심장깊이 새겨 가며

고향집에 전시된 사적물들 앞에서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비전향장기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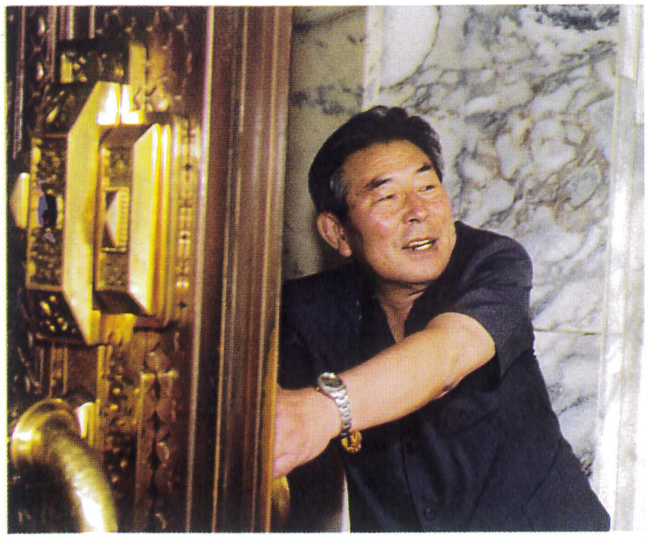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 오신 만경대일가분들인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묘소(우),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묘소(옆)를 찾아 삼가 꽃다발을 드리는 비전향장기수들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올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반신상앞에 삼가 꽃다발을 드리는 비전향장기수들

숭고한 사랑과 의리로 빛나는 애국렬사릉을 찾은 비전향장기수들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 보며 장구하고도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의 력사를 깊은 감동속에 새겨 가는 비전향장기수들

위인칭송의 보물고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은 비전향장기수들



수십년세월 쇠고랑에 묶였던 손으로 전람관의 큰 대문을 열어 본다.

전시된 선물들을 새겨 볼수록 수령복, 태양복을 누려 가는 민족의 긍지 가슴에 한껏 차넘친다.

당창건사적관을 찾은 비전향장기수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광복직후 이곳에서 사업하던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는 김용규동지

태양의 존함을 모신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는 비전향장기수들

세인이 우러르는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사상탑을 돌아 보는 비전향 장기수들

주체사상탑 전망대에 올라

전승의 력사가 빛나는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탑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 보는 비전향 장기수들

조국을 위해 바친 고귀한 피와 땀이 있어 탑앞에 선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습 떳떳하고 자랑스러운것 아니랴.

문화성혁명사적관(옆)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야외촬영거리(우)를 돌아 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다시금 깊이 절감하는 비전향장기수들

꼬마《왕》들의 행복의 요람—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는 비전향장기수들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니 저절로 동심이 되살아나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돌아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고마움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는 비전향장기수들

3대혁명전시관(아래)과 3월26일
공장(옆)을 돌아 보는 비전향장기수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평양지하철도의 웅장화려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비전향장기수들

서해갑문을 참관하는 비전향장기수들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와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비전향장기수들

혁명전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최고화신이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 아니였던들 오늘의 이 꿈 같은 상봉을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왔구나

…

살아서

펄펄 살아서 신념의 그 백발

조국의 푸른 창공에 휘날리며

불굴의 불새되여 돌아 왔구나

…

지옥의 나락속에

모래알처럼 휘뿌려 졌던

우리들의 삶을

알알이 보석처럼 다시 찾아

조국의 푸른 창공에

신념의 별로 얹혀 준

장군님의 품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운명의 하늘이시야

—리인모동지가 지은 시중에서—

남쪽에서 온 대표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비전향장기수들

조국의 품에 안기여 청춘을 되찾은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과 기쁨을 금치 못해 하는 남측의 각계층 대표들

옥방살이 수십여년 제 집이라는 말조차 잊어
버렸던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새 살림집이 배려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마련해 주신 시내 중심의 현대적인 아빠트들

행복의 보금자리로 들어 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간수들이 열어 주는 옥방문만 넘나들던 우리들이 제 손으로 제 집 문의 열쇠를 열고 들어 서는구려.》

…

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셨다
환생의 문
금방석인생의 문
락원의 문을
이 내 손에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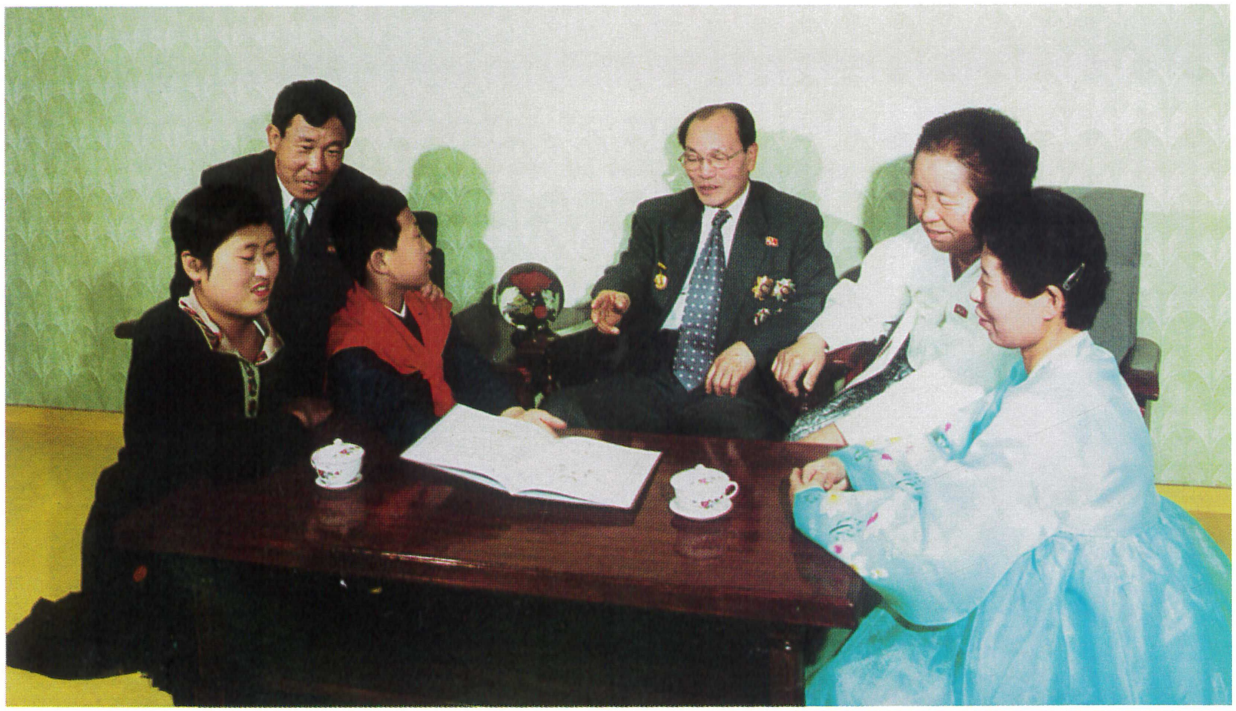
—홍경선동지의 시 《문》중에서—

살림집의 침실(우)과 살림방(옆)

살림살이도구가 일식으로 갖추어 진 부엌(우)과 전실(아래 왼쪽), 세면장(아래 오른쪽)

《이게 정녕 0.75평의 숨 막히는 옥방속에서 등마저 꼬부라든 우리들에게 차례진 내 집, 내 보금자리란 말인가.》

일식으로 갖추어 진 가구들과 부엌세간들을 볼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목이 메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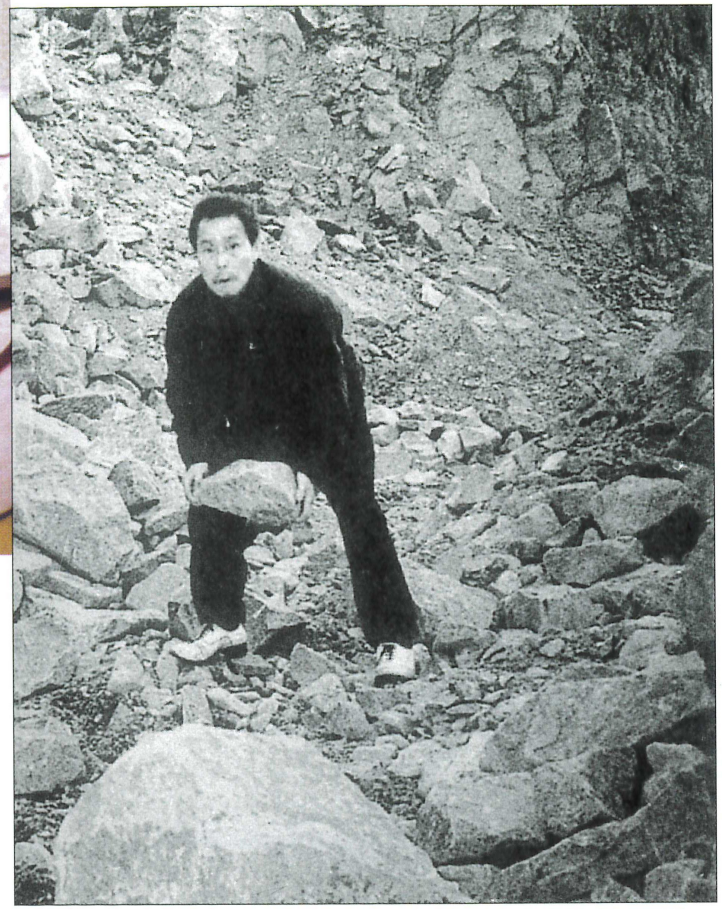


…

아, 이 세상에 몸 담고 살 집은 많아도
우리 집은 하나
7천만이 안겨 살 집은 오직 하나
죽어서도 못 떠날 삶의 보금자리
김정일장군님 품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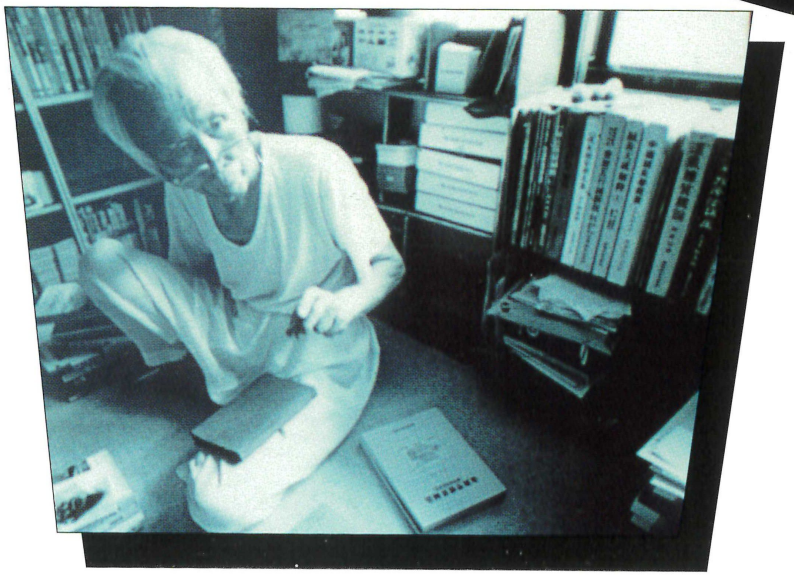
—신인영동지의 시
《우리 집》중에서—

밤은 깊어 가도 받아 안은 사랑과 은혜가 가슴 뜨거워 잠들지 못하는 비전향장기수들과 그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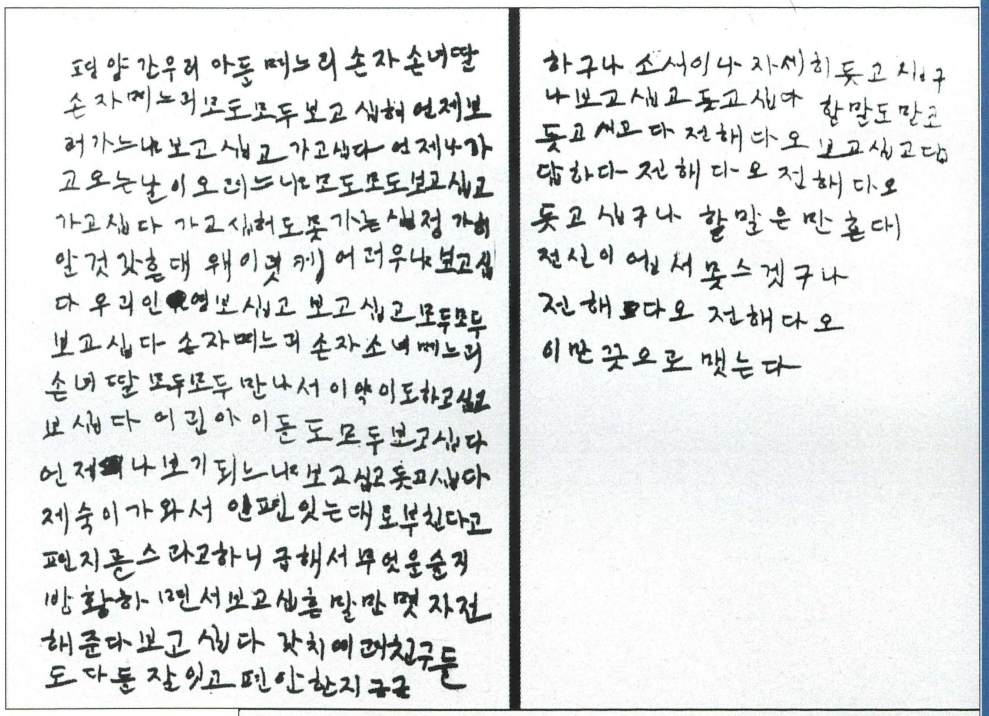
차례진 행복이 클수록 남녘에서 막돌처럼 버림 받던 그 나날들을 더욱 잊을수 없어

백발이 되여 감옥문을 나섰어도 불모의 땅에 떨어 진 락엽 같은 신세였다.



수십년 감옥살이에 병들고 찢겨 진 몸을 지탱해 주고 돌보아 줄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늘의 이 꿈 같은 행복을 남녘에 두고 온 부모, 친척들과 함께 나눌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평양 간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딸
손자며느리도 모두 보고 싶허 언제보
려가느냐 보고싶고 가고싶다 언제나가
고오는날이오리느냐 모도모도 보고싶고
가고싶다 가고싶허도 못가는 심정 가허
알것 같흔대 왜이렇게 어리우냐 보고싶
다 우리인영 보싶고 보고싶고 모두모두
보고싶다 손자며느리 손자 소녀 며느리
손녀딸 모두모두 만나서 이약이도하고싶고
보싶다 어린아이 이돈도 모두 보고싶다
언제 나보기 되느냐 보고싶고 듯고싶다
제숙이가 와서 얼굴 있는대로 부친다고
편지 곧스라고하니 급해서 무엇을 쓴지
방황하 1면서 보고싶흔 말만 몇자 전
해준다 보고 싶다 갓치 예 래친구들
도 다들 잘있고 편안한지 궁금

하구나 소식이나 자세히 듯고 싶구
나 보고싶고 듯고싶다 할말도 많고
듯고 싶고 다 전해다오 보고싶고 답
답하다 전해다오 전해다오
듯고 싶구나 할말은 만흔대
전신이 얼서 못스겟구나
전해다오 전해다오
이만 끗으로 맺는다

신인영동지와 남쪽에 있는 그의 어머니가 하루빨리 모여 살 통일의 날을 그리며 절절하게 쓴 편지들

- 10 - 제 1001 호 뉴코리아타임스

연말 연시, 남북을 오고간 편지들

—북송 장기수가 남쪽 어머니에게

송이송이 함박눈이 남쪽의 정을 담아 소리없이 쌓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에게

보고 싶은 어머님!

지금 창밖에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과 남쪽에 두고 온 모든 잊지 못하는 친지들에 대한 저의 그리운 정을 담아 싣고 송이송이 하염없이 내리는 듯합니다.

어머님,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보고싶었지요. 저도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꿈에도 바라던 저희들의 송환이 실현되어 사랑하는 어머님의 슬하를 떠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년달이 되어옵니다.

그간 매일같이 어머님이 그리웠고 정다운 얼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뒤 어머님이 손수 또박또박 성심 다해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2차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으로 남쪽에 름름하게 자라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이제는 그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소원만이 남았습니다. 이 자식에 대해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와 함께 이곳으로 오시기를 바라시던 어머님. 지금도 눈을 감기 전에 북녘의 자손들을 보고 싶은 것이 마지막 소원이신 어머님의 그 념원은 어머님 생전에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오지 못한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을 다 데려오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한다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아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올 그날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신인영씨가 지난해 9월 북으로 가기 직전 어머니 고 배희씨를 껴안고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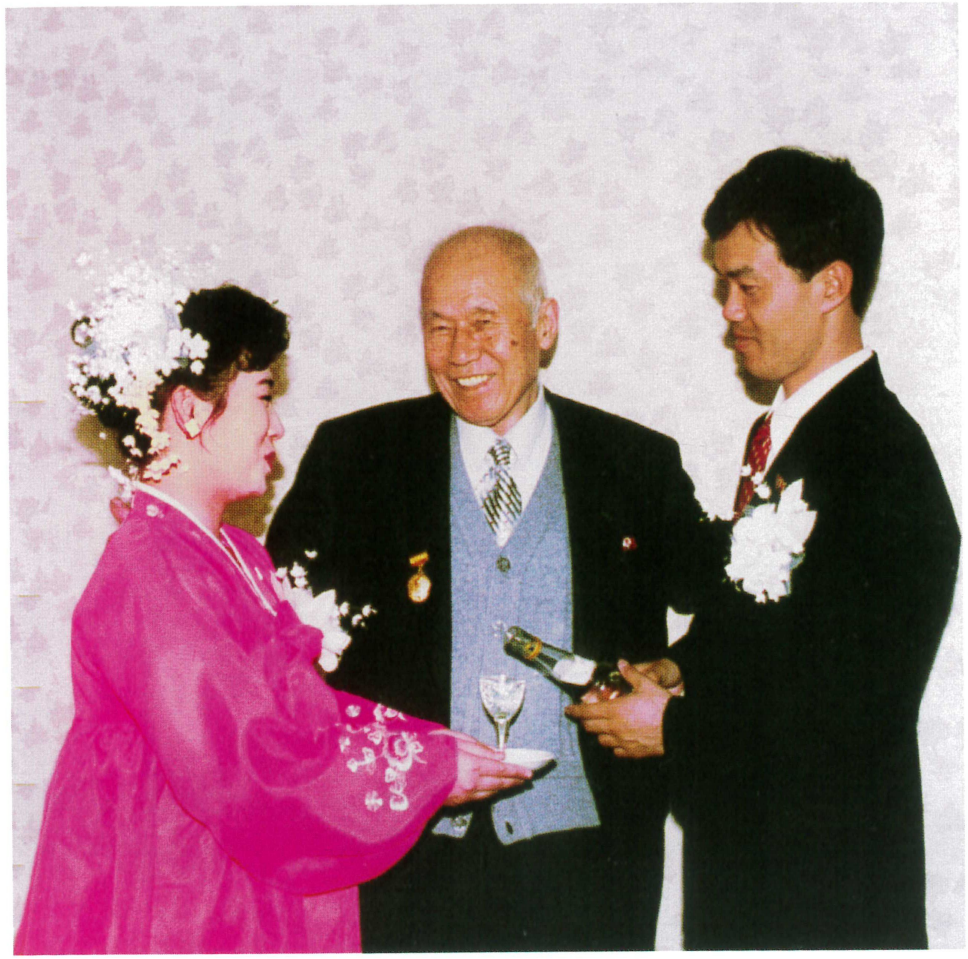
우리 겨레, 우리 가정에 시련만을 가져다 준 피눈물나는 20세기는 저물어 갑니다.

희망찬 래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어머님이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의 풋깊은 첫해를 눈앞에 보면서 이 아들이 사랑하는 어머님께 드리는 설인사를 부디 받아주십시오. 어머님께 이 아들은 무릎 꿇고 새해의 큰 절을 올립니다.

2000년 12월25일

평양에서 당신의 아들 인영 올림

신인영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니 집안에도 기쁜 일만 생기는구나.》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다함 없는 감사와 축원의 마음 꽃바구니에 담아

향기 그윽한 꽃바구니를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비전향장기수들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비전향장기수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금수산기념궁전을 돌아 보는 비전향장기수들

대동강반에서의 아침체조, 조국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호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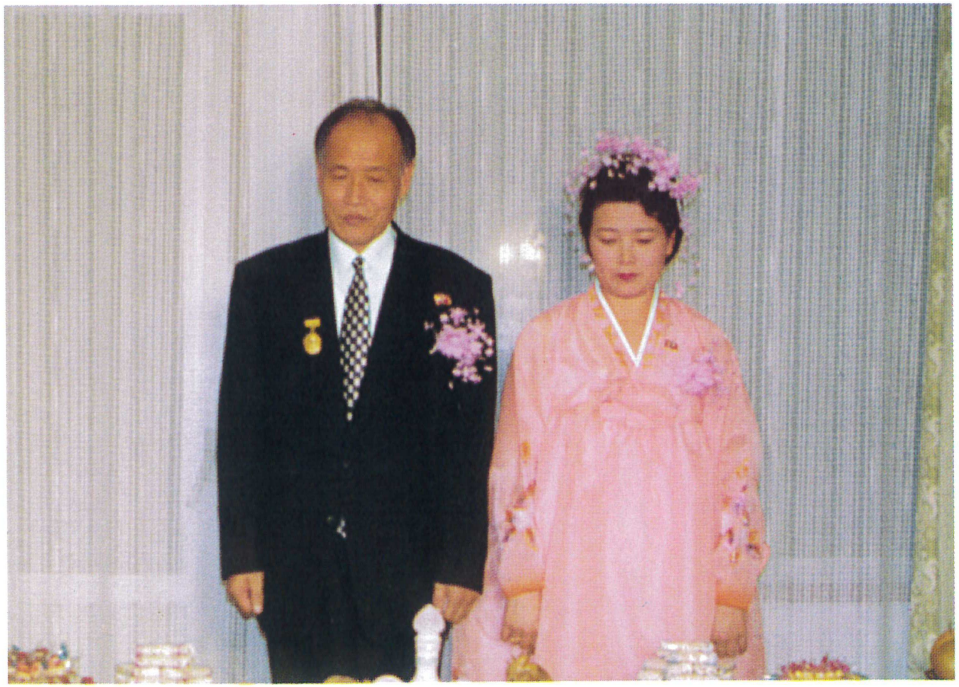
…
새 아침 밝았네 혁명의 수도
발걸음 활기 넘친 영웅의 거리
꿈에도 그리던 품에 안기여
불 타는 신념과 의지를 보네

장군님 부름에 떨쳐 나섰네
아— 나의 사랑 평양의 아침이여

—리두균동지가 쓴 가사 《평양의 아침》중에서—

기쁨이 넘쳐 나는 모습도 청춘
새힘이 넘쳐 나는 마음도 청춘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결혼상을 받아 안은 김선명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선물결혼상들을 받아 안고(웃줄 왼쪽부터 리재룡동지, 함세환동지, 한장호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생일 70돐상을 받아 안는 양정호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생일상을 받아 안고 감격에 목 메이는 우용각동지(옆), 장호동지(아래)

위대한 장군님의 배려로 천하절승 묘향산 탐승길에 오른 비전향장기수들과 그 가족들

가파로운 탐승길도 젊은이들처럼 씨엉씨엉

《한모금만 마셔도 10년은 젊어 진대요.》

한줄기 해빛이 그립던 옥방속에서 과연 오늘과 같은 날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쏟아 지는 폭포수도 축복의 꽃보라인듯

등산길에서 만난 꼬마친구들도 통일애국투사할아버지들에게 아낌 없는 축복을 보낸다.

나무로 새긴 통일조선의 모습을
보니 생각은 깊어 져

통일의 종소리 높이 울릴
그날을 그려 보며

인민군군인들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통일애국투사들의 신념과 의지를 따라 배워 수령결사옹위의 총대를 더욱 굳게 틀어 쥘 결의를 다지는 인민군군인들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그칠줄 모르는 가족유희오락회

조국의 품에 안겨 청춘을 되찾으니 신혼의 정도 되살아나

홍경선부부

신인영부부

최태국부부

안영기부부

김용수부부

손성모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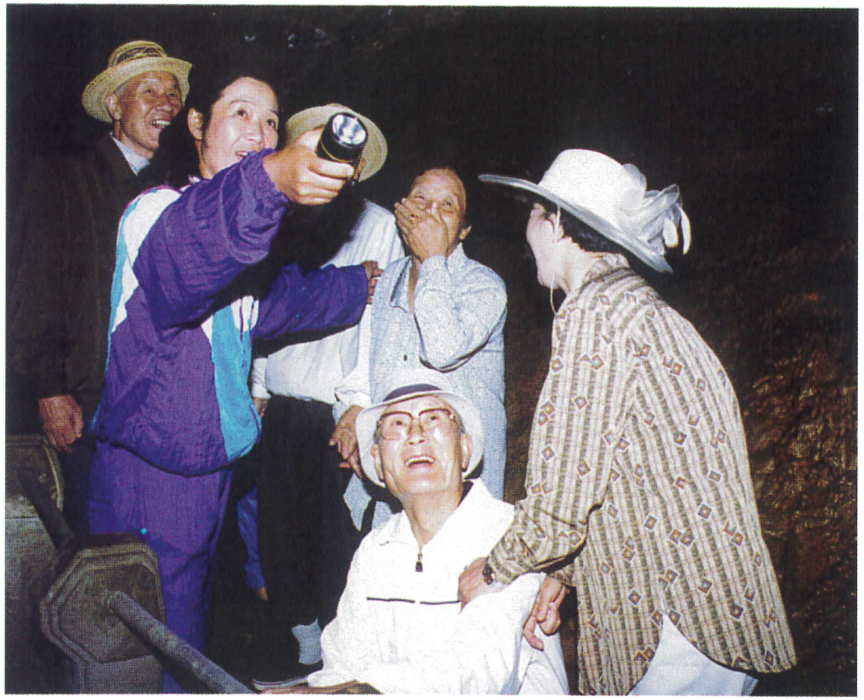
리경찬부부

최하종부부

향산천에 넘쳐 나는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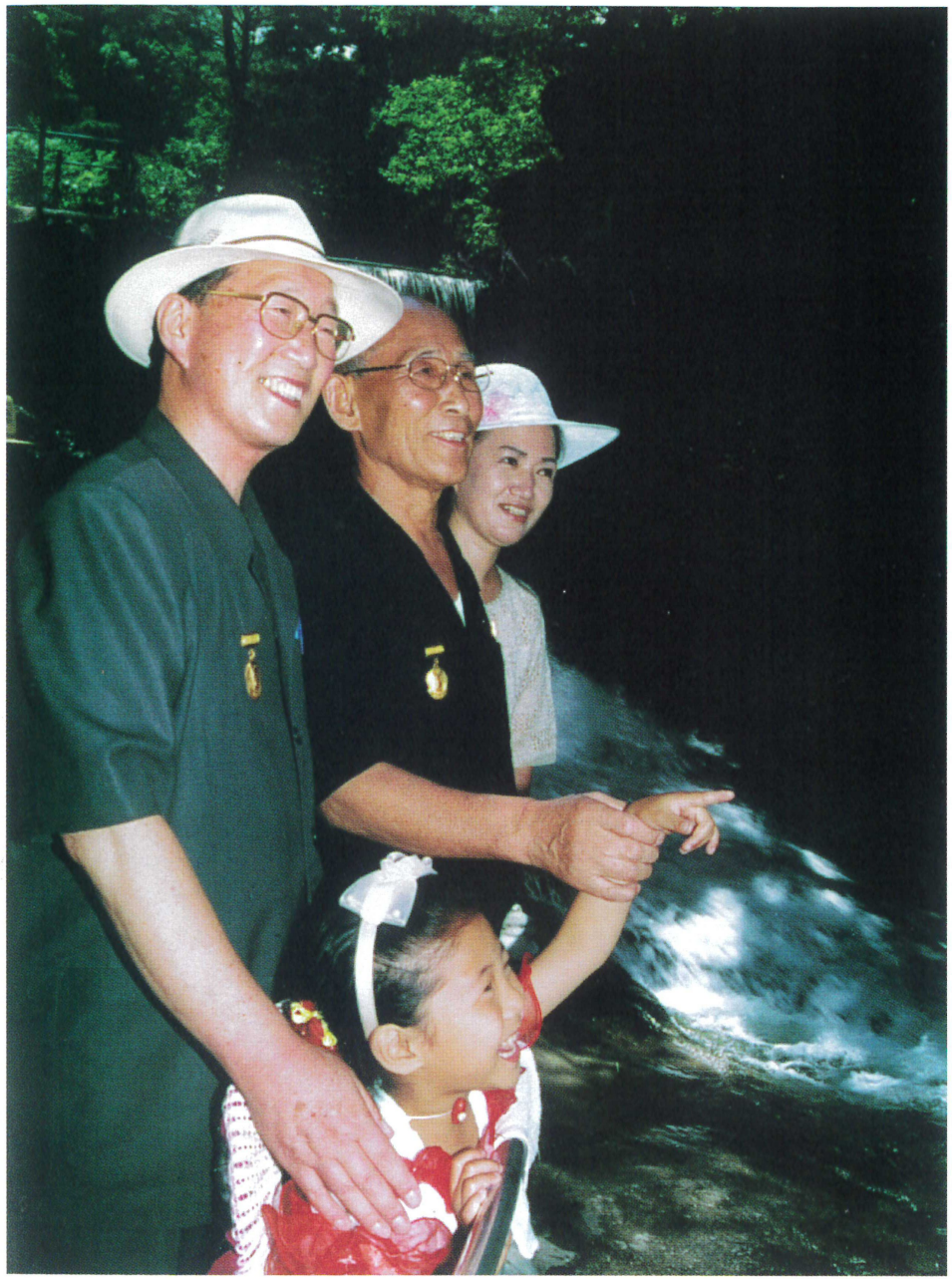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이 넘쳐 나니 노래 춤도 절로 난다.

지하금강 룡문대굴을 참관하는
비전향장기수들



컴컴한 감방속에 갇혀 웃음마저 잃었던 사람들 기기묘묘한 절경에 취해 웃음도 마음껏, 한모금만 마시면 10년은 젊어진다는 《천상수》도 마음껏

서해의 명승 구월산에 오른 비전향장기수들과 그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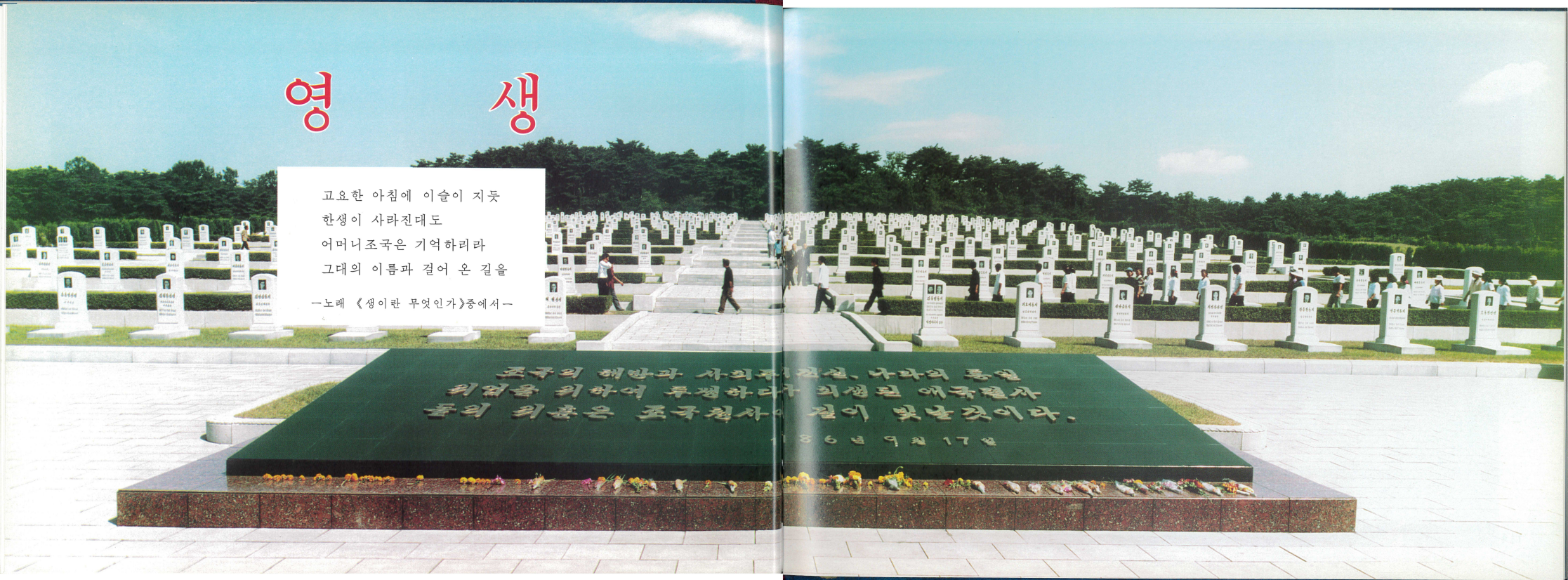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훌륭하게 꾸려 진
구월산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해

영 생

고요한 아침에 이슬이 지듯
한생이 사라진대도
어머니조국은 기억하리라
그대의 이름과 걸어 온 길을

—노래 《생이란 무엇인가》중에서—



운명의 시각을 며칠 앞두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리종환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고 리종환동지의 령전에 보내주신 화환

고 리종환동지의 령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당 및 국가지도 간부들(우) 과 비전향장기수들(아래)

민족의 장한 아들이며 신념과 의지의 강자인 고 리종환동지와의 영결식이 애국렬사릉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애국렬사릉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리종환동지의 묘비

[5] 조 선 신 문 주체90(2001)년 7월 1일(일요일)

운명의 태양을 받드옵니다

비전향장기수 윤용기

해빛을 안고 싸워 이겼습니다

대양사랑의 부르심이였습니다

하늘아래 제일 행복자가 되였습니다

윤용기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 없는 고마움과 뜨거운 경모의 마음을 담아 운명의 마지막시각까지 집필한 글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고 윤용기동지의 령전에 보내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화환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비전향장기수들이 고 윤용기동지의 령구를 찾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윤용기동지를 잃은 애석함을 금치 못해 하는 영결식 참가자들

애국렬사릉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윤용기동지의 묘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 다한 아버지와 남편의 뜻을 이어 갈 결의를 가다듬는 윤용기동지의 가족

비전향장기수들과 함께 백두산 혁명전적지 참관의 길에 오른 윤용기동지의 안해

우리 당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묘비앞에서 격정을 금치 못해 하는 남측대표들

의 리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 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 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 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

—노래 《동지애의 노래》중에서—

조국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맞는 뜻 깊은 2월의 경축무대우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축원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비전향장기수들

통일된 강성대국을 안아 오시기 위하여 끊임 없는 로고를 바쳐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남은 여생을 다 바칠 결의에 넘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굳게 믿고 싸우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반드시 이긴다는 철리를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 주며(창광옷공장에서)

평양남자옷공장 종업원들과
상봉하는 비전향장기수들

평양교예단 교예배우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비전향장기수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마음의 기둥만 든든하면 절해고도에서도 외롭지 않으며 누구나 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될수 있다는것이 저희들이 찾은 인생의 귀중한 진리입니다.

—상봉모임에서 한 조창손동지의 발언중에서—

평양교예단 교예배우들과의 상봉모임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건설장을 찾아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건설장에서 기념식수를 하는 비전향장기수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장군님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할 일념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자자구구 새겨 간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토론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

잡았습니다 격정의 붓을

잉크가 아니라

심장의 피 방울방울 무딘 붓에 기울여

돌아 온 아들들이 노래합니다

하늘 같은 그 은덕 노래합니다

장군님께 삼가 감사 드리옵니다

—윤용기동지의 시 《붓을 잡았습니다》중에서—

받아 안은 영광과 누려 가는 수령복을
글작품마다에 담아

장군님존함송시

비전향장기수 김 종 호

쇠금자 금빛으로 찬란하게 우주를 물
바를정자 옳은 정치로 새 세기를 펼
날일자 해님으로 솟아 올라 인류를
[illegible] 칭송소리

평양의 아침

비전향장기수 리 두 균

김정일태양 따라

비전향장기수 김 창 원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비전향장기수 최 태 국

하나될 조국 위해
잘 싸웠다고
수십년 세월

시

2월의 명절

비전향장기수 [illegible]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이다

비전향장기수 손상모

모교의 존엄

광풍이 휘몰아 칠수록

운명의 태양을 받드옵니다

비전향장기수 윤용기

해빛을 안고 싸워 이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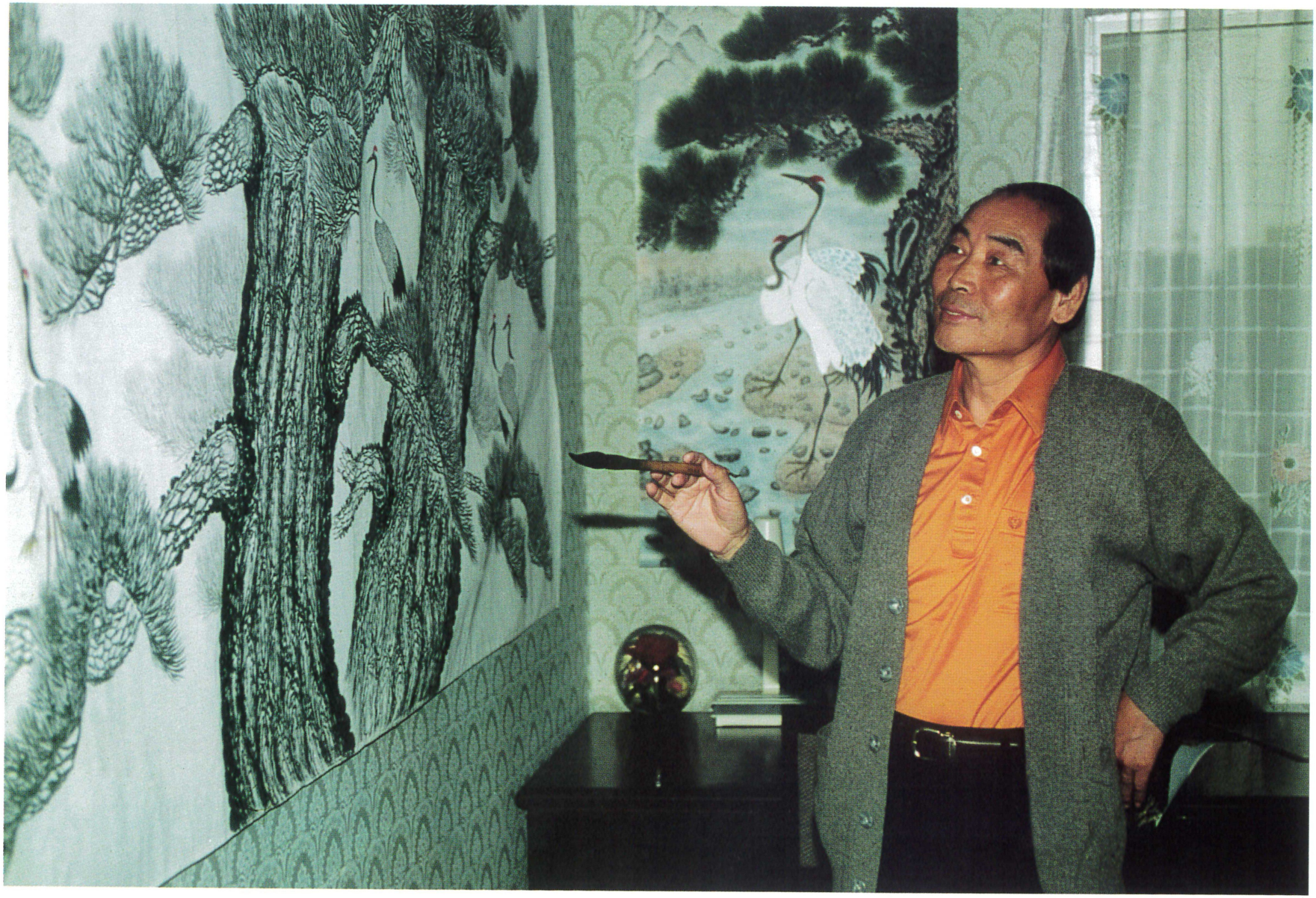
하늘아래 제일 행복자가 되였습니다

신념과 죽음의 대결 45년

비전향장기수 김선명

결사의 각오

신념의 기둥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절절한 마음을 붓대에 실어

깊은 뜻과
간절한 소원
이 담긴 그림
《백두산호랑
이》(왼쪽)
와 《송학》
(오른쪽)

사랑의 비행기에 실려 꿈에도 바라던 백두산혁명전적지 참관의 길에 오른 비전향장기수들

삼지연못가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은 비전향장기수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워 이긴 신념과 의지의 강자 비전향장기수들 장쾌한 백두의 해돋이를 향하여 격정의 만세를 터친다.

백두의 신념과 배짱으로 싸워 이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이 백두산정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부른다.

백두산천지도 자기의 장한 아들들을 꽃물결우에 두둥실 안아 주는구나.

쇠금자 금빛으로 찬란하게 우주를 물들이고
바를정자 옳은 정치로 새 세기를 펼치시네
날일자 해님으로 솟아 올라 인류를 향도하시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칭송소리 높아라
천출명장 위인으로 그 이름 빛나시고
선군령도 위엄으로 천만적을 이기시니
만천하를 다스리는 **김정일**장군님
영원히 청춘으로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김종호동지의 시 《장군님 존함송시》전문—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 고향집을 찾은 비전향장기수들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통일성업에 몸 바쳐 갈 맹세 가슴마다 차넘친다.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항일혁명 선렬들이 헤쳐 온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가 가슴 뜨겁게 어려 온다.

항일의 선렬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 가슴마다 깊이 새겨 가며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돌아 보는 비전향장기수들

선렬들의 숭고한 발자취가 어린 밀림속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비전향장기수들

백두산혁명전적지 강사들과의 상봉모임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백두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이어 갈 비전향장기수들의 굳은 신념이 담겨 진 붉은 기발을 백두산혁명전적지 강사들에게 넘겨 준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부르는 신념의 노래
혁명의 성지에 끝없이 메아리쳐 간다.

승리 떨치리

기어이 장군님 따라

시작한 이 혁명

수령님 따라서

영광의 만리가 있다

승리의 천만리우에

흘린 피 붉은기에 있고

머나먼 혁명의 길에

《우리는 금방석에 앉았습니다》

구성 및 편집:	박명성 김민철
사 진:	리 성 어순철 김창석
인 쇄:	주체91(2002). 4. 1
초 판:	주체90(2001). 10.20
재 판:	주체91(2002). 4.12
낸 곳:	평양출판사